

해외출장(런던·바르셀로나·호치민) 요약

부서 : 도시공간연구실

과제코드 : 2019-ER-00

과제명 : 도시계획시설 광장의 효율적 관리방안 수립 연구

연구책임 : 임희지

자료제공 : 임희지

작성일 : 2019년 5월 일

게시요망일 : 2019년 5월 일

제목 : [해외출장노트] 해외 광장조성 사례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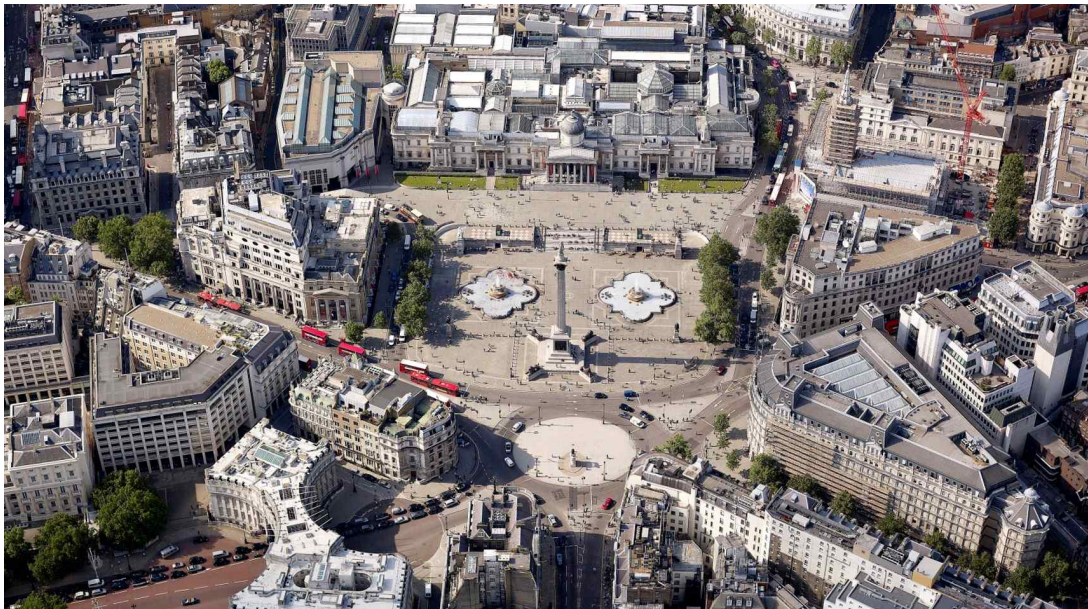
※ 서울연구원은 2012년 10월부터 해외출장보고서를 발췌, 요약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출장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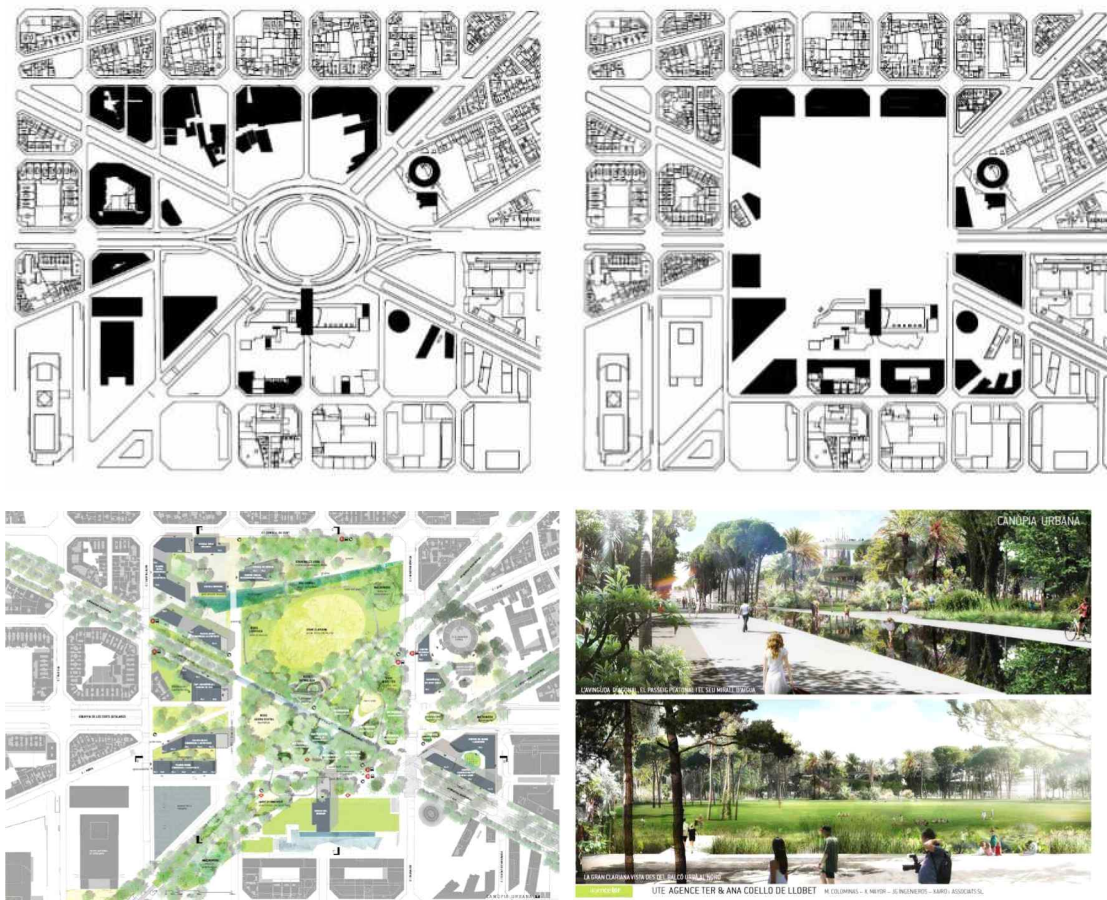
- 현재 수탁과제로 수행중인 「도시계획시설 광장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수립 연구」와 관련하여 서울시 주무부서(도시국 시설계획과)와 함께 유럽 등 국외 광장 조성 사례 조사 및 관련기관 방문을 통해 광장부지 활용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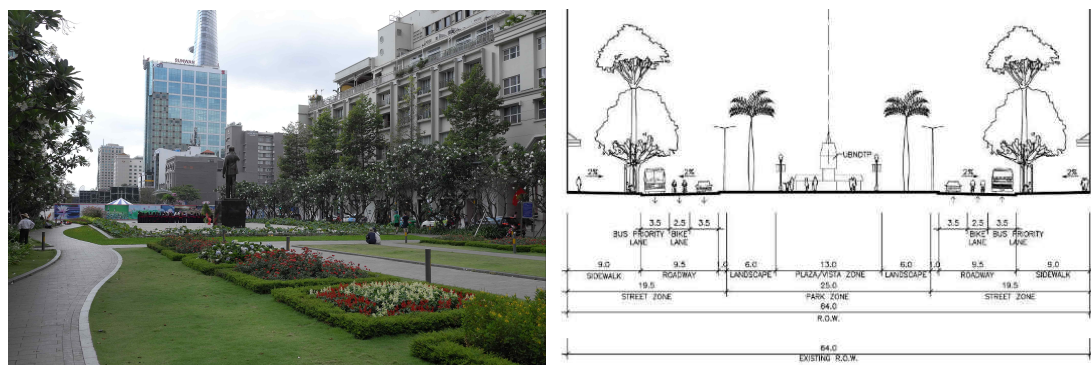
■ 런던 트라팔가광장 사례 주요 내용



■ 바르셀로나 글로리아광장 사례 주요 내용



■ 호치민 응우옌후에광장 사례 주요 내용



○ 시사점

1) 세계 대도시는 보행자를 우선 배려하는 다양한 시책 마련

○ 해외 주요 대도시들은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중심으로 교통정책을 바꾸어나가는 정책을 이미 추진하고 있으며, 보행자 레벨에서 안전, 소음, 공기질을 개선

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 보행자들이 밀집한 교통 결절점을 보행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보행광장으로 조성하고,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런던(트라팔가광장), 바르셀로나(글로리아광장), 호치민(응우옌후에광장) 등지에서 추진되고 있음.

2) 차량중심 도로시설을 보행중심 공간으로 재구조화 추진

- 해외 시찰 도시에서는 도시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들이 교차하는 교통 결절점들을 보행을 우선 고려하는 보행중심 광장으로 바꾸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
- 자동차로 점유되었던 공간을 시민들이 모이는 주요 시설들을 연결하고 보행자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을 제공하며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는 빈 공간과 휴식공간들을 담아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 공공공간으로 조성함.

3) 도시 전체의 도로시설들을 보행중심으로 개조하는 계획 마련

- 이러한 차량시설 개조 사업이 부분적으로 일부 지점에 한정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 차원에서 도로공간이나 교통 결절지를 바꾸는 계획이 마련되고 있음.
- 런던에서는 도시내 자동차 진입을 줄이기 위해 물류시설들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계획과 함께 'Healthy Street' 조성계획이 마련되고 있으며, 바르셀로나에서는 도시를 가로지르는 3개의 간선도로 구조를 보행중심으로 바꾸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또한 호치민시에서는 응우옌후에광장을 가로지르는 주요 간선가로도 보행광장으로 조성해 연결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자료제공 및 문의처 :

도시공간연구실 임희지 선임연구위원 (2149-1055)